

# 옛날에는 더 많이 죽었어!

(무감동의 시대)

무감동(無感動)이란 정상적으로는 기뻐해야 할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 하거나 슬픈 일에도 그 슬픔의 정도에 필적할 감정의 반응이 없음을 말한다. 이것은 정신 병리적으로는 정신 분열병 환자들이나 심한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있음직한 증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심각한 ‘무감동 증(症)’에 빠져 있다. 무엇이 즐거운 일이고 호재(好材)인지, 무엇이 분통을 터뜨려야 할 일이고 악재(惡材)인지 사실상 분간을 잘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큰 동요가 없다.

서해안에서 남북의 병사들이 교전을 벌여도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역시 무감동의 맥락에 있다. 반세기만에 어렵사리 이룩해 놓은 경제를 ‘원 샷’에 날려 먹은 당사자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도 ‘위낙 그러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불쾌감이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무 감동적이다. 경기도 어디에 불이 나서 수 십 명의 어린이가 귀한 목숨을 잃었대도, 어디에 물난리가 나서 수 십 명이 떠내려갔대도 ‘그저 그러려니’ 한다.

“옛날에는 백화점 무너져서 오 백 명도 더 깔려 죽었어!”

무감동은 무엇이나 ?

그것은 극심한 적개심과 실망과 분노의 극적 반전(劇的反轉)이다. 이것은 억압(repression)이라는 매우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방어 본능에서 기인한다. 억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가 되는 방어 기제이다. 이 억압은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프거나 싫은 기억, 분노 등을 듣지 못했거나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억 속에서 썩 지워 버리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사건이나 사실 여부만을 기억하고 그때 동반되었던 감정은 쓱쓱 털어 버리는 격리(isolation)라는 방어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개체는 이런 정신 방어 기제를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동요를 막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정돈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잘 까먹는 ‘망각의 민족’이 되어 버린 것도 억압해야 할 많은 기억들, 예컨대 일제 36년이라던가, 6.25 전쟁, 서릿발 같은 독재 치하의 쓰라린 추억이 많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억압이 많을수록 또 억압해야 할 사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체는 그 억압을 정당화할 선입견이나 특정 사고(思考) 속에 갇혀야 한다. 당연히 많은 억압에 곁들여 지는 것이 좋지 않은 편파적 사고이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억압되어 감동 받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 상태 뿐 아니라 그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의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정작 관심을 보여야 할 중요한 일에는 시큰둥해 버리면서도 별 쓸데없는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이다.

지금 터지려는 분통은 다 눌렀다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에게 생겨 있는 편견들은 어떤 것들인가?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공무원들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전부 부도덕하다”, “경찰은 무능하다”, “검찰은 제 밥그릇만 챙긴다”, “병원은 의료 보험금을 도둑질한다” 등이다. 일부는 타당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그야말로 편견 수준을 넘지 못하는 발상들이다.

자유로운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월이 와야 한다. 그래야 감동적인 일에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사실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선입견 적인 편견들이 없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에만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